



어느 해 겨울, 나는 지리산 종주를 하고 있었다. 겨울이라고 해도 맑은 날이 계속 이어졌는지 산은 바짝 말라 있었다. 삼일째 되는 날, 나는 흔히 가는 길에서 벗어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거기서부터 고생이 시작되었다. 서너 시간을 걸어 샘이 있다는 곳에 도착하니, 바짝 말라 있었다. 그나마 있던 물은 오다가 다 마셨으니, 그냥 라면이나 씹어먹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젊음과 무모함을 무기로 삼던 시절이라, 늘 그렇듯이 어떻게 되겠지 하며 계속 나아갔다. 계속 능선을 따라가는 길이었기에, 물이 나올 턱이 없었다. 게다가 쌓인 눈도 없이 마른 풀뿐이었다. 그래도 목적인 곳까지 가겠다는 굳은 신념이 있었기에, 입술에서 끈적거리는 것을 떼어내면서 무작정 걸었다. 어두컴컴할 때쯤 출발해서 어둠이 깔릴 때까지, 거의 열두 시간을 물 한 모금 없이 걸은 셈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헉헉대며 거의 무아지경 상태에서 걷다가, 마침내 산등성이가 약간 꺼진 곳에서 나뭇가지에 달라붙은 고드름을 만났다.

바로 이 맛이야! 하고 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냥 오도독오도독 씹어대기만 했을 뿐 아무 맛도 못 느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나간 하루가 끝난 뒤 마을로 내려와 허름한 중국 집에 들어가서 볶음밥을 시켰다. 나온 볶음밥에 소금을 왕창 뿌린 뒤 허겁지겁 억지로 퍼 넣었다. 잃어버린 염분을 보충한다는 사명감을 앞세우고서.

빌 브라이슨의 《나를 부르는 숲》을 읽다보면 그런 추억이 솔솔 떠오른다. 게다가 지리산과 설악산을 계속 오르내리며 더 긴 등산로는 없나 하며 아쉬워하는 등산가들에게는 꿈만 같은 3,500킬로미터에 달하는 등산로라니. 빌 브라이슨은 그 지나간 산길을 가면서 겪는 일들을 시시콜콜 이야기한다. 똥보 친구랑 티격태격하고, 가다가 만난 사람들과 이런저런 갈등을 빚기도 하고, 이 책의 장점은 깔깔거리게 만드는 그런 솔직하고 유쾌한 태도다. 저자는 그런 긴 산길을 종주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운 사람에게서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인 어깨에 힘을 주고 빠기는 듯한 자

## 숲에서 보낸 한때 과학을 만나다

세를 처음부터 스스로 무너뜨린다. 허둥거리고 구시렁대고 잔머리 굴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해 볼까 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 태도는 중주를 거의 마친 뒤에도 변함이 없다. 저자는 끝까지 가진 못했지만, 어쨌든 걸었으니까 개의치 않는다고 말한다. 내가 직접 산길을 갈 때보다도 이 책으로 저자와 함께 가는 길이 더 유쾌한 것은 왜일까.

브라이슨은 무거운 배낭을 등에 짊어지고 힘들게 숲속을 걸었지만, 숲을 즐기는 방법이 그것만은 아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처럼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것은 과학과 함께 하는 방법이다.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지. 등산할 때 잣을 따러 나무 꼭대기에 오른 적이 있다. 청설모가 잡아먹고 버린 잣 열매를 보고 혹해서 잣나무를 기어 올라갔는데, 잣은 따지만 끈끈한 나무진이 곳곳에 묻은 바람에 옷 한 벌을 버려야 했다. 하지만 그래도 꼭대기에 올라가니 기분은 좋았다. 아슬아슬한 짜릿함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여기 그보다 더 아슬아슬한 모험을 담은 책이 있다. 마거릿 로우먼의 《나무 위 나의 인생》은 우리의 숲보다 높이가 두 세 배는 더 되는 열대우림 꼭대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책이다. 나무 꼭대기인 우듬지가 그 아래쪽과 다른 새로운 생태계를 이루고 있음이 알려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자연을 알 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일깨운 발견이었다. 저자는 그 연구의 개척자 중 한 사람이다.

긴 밧줄이나 사다리, 기중기, 비행선을 이용해, 혹은 아예 발판과 통로를 만들어놓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연구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멋진 일이다. 물론 추락할지 모를 아슬아슬한 위험과 날씨와 벌레 같은 성가신 것들을 견뎌내야 하지만 말이다. 이 책은 그런 선구적인 연구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생활하는 여성 과학자의 모습을 세세하게 담고 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과학을 직접 접할 기회가 거의 없겠지만, 이 책을 통해 상상이라도 해보자.

그런 한편으로 누구나 쉽게 숲을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유미의 《광릉 숲에서 보내는 편지》나 차운정의 《숲의 생활사》를 들고 숲으로 가면 된다.

이유미의 책은 숲이나 수목원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을 하나씩 섬세한 눈으로 바라본다. 개나리, 끈끈이주걱, 순채 등등. 지금은 들어가지가 좀 수월치 않지만, 저자가 일하는 울창한 광릉 숲으로 가서 읽으면 더할 나위 없이 멋진 하루가 될 듯하다.

차운정의 책은 그와 달리 숲의 계절별 모습을 담고 있다. 봄에 깨어나 정열적인 여름을 지내고 가을에 마감을 하고 새로운 봄을 위해 겨울을 건디는 숲의 모습이 잘 포착된 사진들과 함께 담겨 있다. 각 장의 제목들만 보아도 웬지 한 세계가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숲속을 천천히 걸으며 길가에 핀 꽃이나 땅 위를 기어가는 곤충을 보면, 생명의 약동을 느낄 수 있을 듯하다.

이런 책들을 읽으니 한 대학친구가 생각난다. 전공 덕에 그나마 남보다 생물에 관한 지식을 약간 더 갖추게 된 친구는 그 지식을 데이트 때 잘 써먹었다. 친구는 좀 마음에 든다 싶은 여자를 만나면 가까운 산에 등산을 가자고 꼬셨는데, 산에 가면 현란한 말솜씨로 길가에 나 있는 식물들의 이름을 죽 읊어댔다. 이젠 전남성인데 한약재로 많이 쓰요. 이걸 미치광이풀이라고 하는데 먹으면 미친다고 하죠. 이걸 처너치마라고 해요. 정말 처너가 치마를 두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데이트 상대는 탄복한 시선으로 친구를 우러러보게 마련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만남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모르겠다.

이제 자연을 알고자 하는 욕구를 어디에서나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 서서히 조성되어 가고 있다. 대도시에서도 야생화를 심은 작은 공원을 쉽게 만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자연관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다. 불행히도 그런 만남이 과학의 출발점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숲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열린 마음과 올바른 과학지식을 지닌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말이다. **한글**



#### 이 글을 쓴 이한음은

서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했으며, 199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당선됐다. 현재 과학 전문 번역가로 활동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과학소설집 《신이 되고 싶은 컴퓨터》가 있고, 옮긴 책으로는 《복제양 돌리》 《클론 AND 클론》 《일부일처제의 신화》 《앞으로 50년》 《핀치의 부리》 《유전자의 세기는 끝났다》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남자》 《여자, 그 내밀한 지리학》 등이 있다.

《나를 부르는 숲》 빌 브라이슨 지음 | 홍은택 옮김 | 동아일보사 | 416쪽 | 값 9,500원  
 《숲의 생활사》 차운정 지음 | 웅진닷컴 | 232쪽 | 값 15,000원  
 《광릉 숲에서 보내는 편지》 이유미 지음 | 지오북 | 320쪽 | 값 14,000원  
 《나무 위 나의 인생》 마거릿 D. 로우먼 지음 | 유시주 옮김 | 놀와 | 320쪽 | 값 10,000원